

<2015년 7월 1일 수요말씀>

<핵>을 차지해라

본 문 요한복음 14장 6절

『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,
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‘**성경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망한다.**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

성경뿐 아니라 **꿈, 만물 계시**를 억지로 풀거나,
자기 생각,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잘못 풀거나,
주의 말, 주의 생각을 억지로 잘못 풀어도
스스로 고통을 받고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.

◎ 오늘은 ‘<핵>을 차지해라.’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.

<전체>를 못 얻어도 **<핵>을 차지하는 것이**
잘되는 비법으로서 성령의 계시입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사람들은 마귀에게는 시간을 잘 주면서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인색하게 시간을 안 주고
문제가 있을 때만 해결해 달라고 하며 찾습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모든 것의 핵>인데,
<핵>에게 시간을 안 주고 <핵>을 뺏기니,
<전체>가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.

- ◆ <핵>은 작아도 ‘전체의 에너지 역할’을 합니다.
고로 작아도 <핵>을 빼면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
- ◆ 가령 가정에 소, 돼지, 말, 개가 있다 합시다.

많은 가축들 중에서 <개>는 작습니다.

작다고 빼면 ‘집을 지키는 일’을 못 하니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
이와 같이 <그 일의 사명자들>도
작다고 빼면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
- ◆ <구원자>는 ‘지구 세상의 에너지 역할’을 합니다.

고로 전체에 비해 작지만,
<구원자>가 빠지면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
- ◆ <눈>은 전 지체에 비하면 작습니다.

그러나 <눈>이 사명을 안 하고 감고 있으면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<구원자>도 이 세상 앞에 그러합니다.

- ◆ <한 교회의 그 센터의 충성자>는 작지만,
그 한 사람이 빠지면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- ◆ 글을 다 쓰고 <핵심 한 줄>만 빠져도
<글 전체>에 영향이 가서 ‘뜻’ 이 전달되지 않습니다.
- ◆ 설교할 때나, 시대와 주를 증거할 때나, 강의할 때
<목적을 둔 한마디 말>은 전체에 비해 작지만,
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빼고 가르치면 <전체>에 영향이 갑니다.

고로 그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됩니다.

고로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.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

◎ <핵>을 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겠습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이 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.

<이야기하는 목적>은 그 친구에게 ‘자기 생일’ 을 알려 주고
초대하여 함께 생일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.

그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.

“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이야.

모두 바쁘겠지만, 내 생일이니 와서 축하해 줘.

생일에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‘의리’ 이며 ‘우정’ 이잖아.”

친구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잘되어
꼭 생일날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

원래는 안 갈 마음이었는데,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갔습니다.

그는 친구에게 또 말했습니다.

“내 생일은 3월이야. 봄에 생일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?”

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말하기를

“맞아. 봄에 생일이 있으면 정말 좋아.

내 생일도 3월 13일이야.” 했습니다.

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

“고마워.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

내 생일에 온다니까 정말 좋아.” 하고 떠났습니다.

그리고 자기 생일에 그 친구가 올 것으로 알고 준비했습니다.

그러나 <생일 당일>이 됐는데,

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는 안 왔습니다.

몹시 서운하게 생각하고,

음식을 먹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.

“꼭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지?” 하니,

옆에서 말하기를

“온다고 약속했어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니 못 왔겠지.

한 번 전화해 봐.” 했습니다.

그러나 그 친구는 전화가 없어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.

옆에서 또 말하기를

“혹시 그 친구가 ‘생일 날짜’를 모르는 것 아니야?” 했습니다.

그제야 그 친구에게 생일이 ‘봄’이라고만 말했지,
<핵>인 ‘날짜’는 못 알려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친구와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
<핵>, 곧 ‘날짜’를 못 알려 준 것입니다.

- ◆ 이와 같이 설교할 때나, 증거할 때나, 강의할 때나,
이야기할 때나, 대화할 때나, 기도할 때나, 전도할 때나,
일할 때나, 작품을 만들 때나, 글을 쓸 때나,
시를 쓸 때나, 잠언을 쓸 때나
<거기에 해당되는 핵>을 꼭 말해야 됩니다.

<핵>을 미리 써서 잊지 않도록 전초하고,
<핵>을 중심으로 ‘배경’을 설명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.

★ <핵>을 넣어야 생명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고 전체가 빛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◎ <핵>에 대해서 ‘다음 단계’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육>은 ‘배경’이고,
<마음·정신·생각>, 즉 <뇌>는 ‘핵’입니다.

<뇌의 생각>에 따라서 <육>이 행하여 그로 인해 운명이 좌우됩니다.

- ◆ 창조주 하나님이 <인간>을 보실 때,
<인간의 영>은 ‘핵’ 이고
<인간의 육>은 ‘배경’ 입니다.

<핵>인 ‘영’ 을 위해 <배경>인 ‘육’ 을 창조하셨습니다.

<영>을 ‘하늘나라 형체’ 로 만들어 구원시키고 휴거시키기 위해
<육>을 ‘배경’ 으로 사용하여 육이 행함으로
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<영>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. <끝>

- ◎ <영>은 ‘핵’ 이고, <육>은 ‘배경’ 이라는 것에 대해
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<사람>은 ‘지구의 핵’ 이고,
<만물들>은 ‘배경’ 으로 창조하셨습니다.

만일 <배경>인 ‘만물’ 을 창조하지 않고
<핵>인 ‘사람의 육’ 만 창조했다면,
육신은 ‘살아갈 터전’ 이 없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.

고로 <핵>인 ‘사람의 육’ 이 존재하도록
<배경>인 ‘만물’ 을 창조하셨습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배경>인 ‘육’ 을 창조해야
<핵>인 ‘영’ 이 육을 배경으로 삼고 살기에
<영>을 위해 <육>을 창조하셨습니다.

<육>이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를 사랑함으로
<육의 행위>에 따라서 <영>이 변화되게 하고,
<육>이 죽으면 결국 <영>을 취하여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에
근본의 목적을 두고
<핵, 영>을 위해 <배경, 육>을 창조하셨습니다. <끝>

◆ <존재물의 핵>은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.

★ 하나님은 <사랑>을 ‘핵’ 으로 두고 역사하십니다.

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

매일 진정으로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를

삼위일체도 역시 진정으로 최우선으로 사랑해 주시며,

그를 ‘신부’ 로 삼으시고, 그를 통해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.

★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

구원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해도

<핵>인 ‘사랑’ 이 빠지면,

<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>이 달성되지 않습니다.

◆ <핵>이 있어야 <목적>이 달성됩니다.

<핵>인 ‘사랑’ 이 있어야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이 이루어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미련하고 무지한 자는 <전체>만 차지하려 합니다.

지혜로운 자는 <핵>을 차지하고, <배경>은 만들어 나갑니다.

- ◆ <핵>은 사랑 덩이이며, 보화 덩이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<핵>은 반지 중앙을 장식하고 있는 ‘다이아몬드’와 같고,
<배경>은 반지의 틀인 ‘금’과 같습니다.

<핵>인 ‘다이아몬드’만 있으면,
<배경>인 ‘금’은 사서 만들면 됩니다. <끝>

- ◆ 지혜와 지식 중에서 <지혜>가 ‘핵’입니다.
<지식>은 ‘배경’입니다.

먼저 <핵>인 ‘지혜’가 있어야
그 터전 위에 <배경>인 ‘지식’을 쌓아 가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.
지식을 지혜롭게 쓰기입니다.

- ◆ 모르는 자는 <핵>을 중심하지 않고,
<핵>을 쓴 배경>을 중심합니다.

- ◆ 어떤 산과 밭을 샀다 합시다.
<핵>을 보고 산 것입니다.
그러나 <핵>은 숨어 있어서 안 보입니다.

- ◆ 모르는 자는 <핵>을 안 보이니,
산과 밭을 핵으로 알고 거기에 농사나 짓고 나무만 가꿉니다.
지혜로운 자는 그 산과 밭의 <핵>을 찾아서 개발합니다.

- ◆ 모르는 자는 <조개>만 가지고 가고,
지혜로운 자는 <조개 속에 든 핵, 진주>를 따 가지고 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전체>는 <핵>을 위해 존재합니다.
- ◆ <전체>가 <핵>을 만듭니다.
그리고 <핵>은 <전체>를 위해 쓰여집니다.
그리고 <핵>으로 인해 얻게 됩니다.
고로 <핵>을 중시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★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핵>을 보내십니다.

<핵>이 길이며, 진리이며, 생명이며,
<핵>이 구원이며, 최첨단인 휴거입니다.

<핵>은 곧 ‘구원자’입니다.

- ★ <핵>은 하나입니다. 태양과 같습니다.

어제의 태양은 끝났습니다.

오늘이라는 날에 ‘삼위일체의 태양’ 이 떠서
<땅의 핵>과 일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. <끝>

- ◆ <핵>이 문제를 해결합니다.
곧 <핵, 구원자>가 인생 문제, 구원 문제, 영혼 문제를 해결합니다.

◆ <핵>이 답입니다.

곧 <핵, 구원자>가 인생의 답, 구원의 답, 휴거의 답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◆ <하늘의 핵>이 와야 <땅의 핵>과 하나 되어 역사가 시작됩니다.

곧 <성자>가 오셔야 <보낸 구원자>와 하나 되어
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할 <성약역사>가 시작됩니다.

이미 이 역사는 시작되었고, 완성하였고,
다음 차원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. <끝>

◆ <핵>이 없으면 ‘생명의 역사’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

◆ <인간의 생명>도 ‘핵’에서 시작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한 지역도 <핵>을 차지하면 <전체>를 차지한 것보다 낫습니다.

월명동도 수천 평 중에서
<핵>인 ‘옛날 집터 200평’을 차지했기에
<그 지역의 전체>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.

<근본의 핵>은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’ 이십니다.

선생이 <핵>인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’를 차지하니,
그로 인해 <땅의 백보좌, 월명동 전체>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.

◆ <핵>을 보고 “명당이다. 자미원이다.

천하의 길성지다.” 하는 것입니다.

◆ 역사적으로도 <핵심지역>이 있습니다. 곧 <에덴동산>입니다.

◆ 구약 때는 <에덴동산>이 ‘하나님 역사의 핵 지역’ 이었습니다.

<신약의 에덴동산>은 ‘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’ 이었습니다.

◆ **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태어난 지역이**

<그 시대의 에덴동산>이며

<하나님 역사의 발원지>이며 <핵심지>입니다.

그곳에서 **보낸 자**도 태어나고, **새 역사**도 시작됩니다.

곧 **신약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**

<신약의 에덴동산>이 되고

<신약역사의 발원지, 핵심지>가 되어

그곳에서 구약 앞에 새 역사인 <신약역사>가 시작됐습니다.

◆ **구약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곳,**

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은 완전한 이상세계가 아니었습니다.

형체와 모양은 갖추져 있었지만, 개발하지 않아서 삭막했습니다.

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

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여

먼저 **자신**을 개발시키고 완성시킨 후에,

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상대로 **그 지역**을 개발해야 했습니다.

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지 못한 채 타락했기에
<에덴동산>은 전혀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
타락함으로 인해 쫓겨나고 끝났습니다.

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개발했고,
이스라엘 민족이 ‘종의 입장’ 에서 개발했기에
<구약 종급 차원>으로 개발하여
<구약 종급 구원역사>를 이루었습니다.

- ◆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‘제2의 에덴동산’ 이었습니다.
그곳이 “명당이다. 길성지다. 자미원이다.” 하는 곳이었습니다.

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세에는
그 지역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.

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3년 동안 겨우 ‘신약 복음’ 만 전했지,
그 지역을 개발할 정황이 아니었습니다.

그저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
예수님이 태어나신 ‘베들레헴 지역, 환경’ 만 차지했습니다.

그 후에 ‘제2의 신약 에덴’ 이 개발되어
<지금의 신약 성지>가 되었습니다.

그곳이 <하나의 성전 지역>이 되었습니다.

- ◆ <이 시대 성약 에덴동산>은
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난 고향 땅입니다.

그 지역은 ‘지형, 모양, 환경’ 이 다 갖춰져 있었으나,
즉시 개발할 수는 없었습니다.

<시대 성약 복음>을 전하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야
따르는 자들과 함께 삼위일체의 구상대로 조금씩 개발했습니다.

<복음>과 함께 개발되는 것입니다.

<성약 복음>을 전하면서
따르는 자들과 함께 삼위일체의 구상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발하여
<오늘날 시대 에텐동산>이 되었습니다.

- ◆ 제1의 구약 에텐과 제2의 신약 에텐은 당세 때 개발하지 못했습니다.
제3의 성약 에텐만 당세 때 개발했습니다.

- ◆ <성약 섭리역사>는
성자가 지상에 계실 때 당세에 <핵>을 다 개발하고 썼습니다.

나머지 더 손대고 개발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.

이것은 <성약 복음>을 계속 전함으로
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면 장소가 좁으니,
<핵심지>를 중심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

- ★ <이 시대 성약역사>는
성자께서 분체와 함께 당세에 <휴거>까지 다 이루었고,
<성약의 에텐>도 개발해서 쓰고 만족했고,
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된 자들을 휴거시켜
<천국 황금성>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.

이로 인해 구원자가 살아 있는 당세에 ‘휴거의 문’ 이 열렸습니다.

- ★ <구약역사>는 ‘소생기 역사’ 이고,
<신약역사>는 ‘장성기 역사’ 이고,
<성약역사>는 ‘완성기 역사’ 입니다.

고로 하나님은 마지막 완성기 역사인 <성약 당세 때>
정녕코 행하여 ‘창조 목적’ 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!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
구원자를 쓰시고 ‘창조 목적’ 을 이루신 것입니다. <끝>

◎ 비유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어떤 남자가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,
그 마을을 개발해 주며,
자기가 사랑할 자를 수십 년 동안 길렀습니다.

그러다가 때가 되어 자기가 목적인 대로
사랑으로 키운 자를 ‘배우자’ 로 택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고,
자기와 함께 ‘회사 일을 할 인재들’ 을 택하여 데리고 갔습니다.

이로써 <자기 목적>을 이룬 것입니다.

- ◆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
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
인생들을 돕고 사랑해 주고 키우셨습니다.

이로써 ‘신부들’ 을 만들어 휴거시켜
<천국의 최고 세계인 황금성>에 데리고 가셨고,

‘자녀들’ 과 ‘종들’ 도 만들어
〈그에 해당되는 세계〉에 데리고 가셨습니다.

◆ 처음에 다 이루는 역사는 없습니다.

처음에 복음을 전한 생명들이 다 깨닫고 오는 역사는 없습니다.
역사는 ‘점진적’ 으로 이루어집니다.

◆ 〈섭리역사〉를 시작했을 때,
처음에는 ‘시대 구원자 한 명’ 이었습니다.

그러다가 두 명, 세 명이 되었습니다.
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도 처음부터 10명, 100명은 없습니다.
점진적으로 깨닫고 역사를 따라옵니다.

〈휴거〉도 처음에는 한 명이 되고, 그다음에 군중을 이룬 것입니다.

◆ 휴거되면 위력이 엄청납니다.

〈육신〉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
〈혼〉이 〈자기 육〉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행하면,
육신의 제재를 안 받으니 그 행함이 엄청납니다.

〈영〉도 그러합니다.

〈육〉이 할 일을 다 하고 〈영〉이 휴거되면,
〈영〉은 〈육〉을 완전히 벗어나 영계에 가게 됩니다.

그러면 **육신의 제재**를 받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.

고로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. 그로 인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.

- ◆ 한 명에서 시작한 <휴거>로 인해 군중을 이루었습니다.
<역사의 핵>인 ‘휴거’를 차지했습니다.

휴거된 군중들이 ‘시대의 핵, 구원자’와 일체 되어 행하면,
그 위력은 엄청나고 돌풍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!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합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휴거에 대해 불이 식었느냐.
기도의 불이 식었느냐.
각종 행위의 불이 식었느냐.
고로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느냐.

뜨거운 물이 식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.
또 뜨겁게 하면 뜨거워진다.

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해라.

그러면 즉시 휴거의 감도 살아나 뜨거워지고
기도도, 각종 행위도 뜨거워진다.”

★ 오늘 말씀

<핵>을 차지해라. <전체>를 못 차지하면 <핵>을 차지하기다.
이것이 ‘잘되는 비법’이며 ‘성령의 계시’입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